2017

사순절 묵상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이로라"
로마서 6 장 8~9 절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617.739.2663 / www.kcboston.org

홍보위원회 편집위원_ 김한나, 김영순, 김희수, 김수영, 박신영, 윤경문 표지 디자인_ 장지은

사순절 묵상집 2017

보스톤 한인 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본 묵상글은 교회 홈페이지(www.kcboston.org) 'Resources' 코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두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벧전 1:24, 25)

매년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는 묵상집을 발간하는 시간이 찾아 옵니다. 사실 그 때부터 사순절의 은혜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묵상집 발간 준비를 시작하면 사순절을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게 되니 말입니다.

준비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면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지 얼마 지나면 정확히 주일을 뺀 40일이 지나면 부활절이 찾아 옵니다. 부활절과 함께 어느덧 사순절은 기억으로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질까요?

물론 사라집니다. 풀과 같이…. 언젠가 우리들의 육체도 풀과 같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글로 쓰는 시간입니다. 글로 쓴 묵상집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사순절이 찾아 옵니다. 사순절을 준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글로 남기십시다.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십시다. 함께 나눈 말씀대로 삶을 사십시다. 그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영원을 향한 여행을 올해도 시작하십니다.
이 여행 준비를 시작하신 홍보 위원회 여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길 목사

재의 수요일/ 3월 1일

사순절을 기다리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누가복음 9:23)

세월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같다. 엊그제 같기만 한 2016년도 사순절과 새벽기도, 그리고 부활절을 회상해 본다.

해마다 맞는 부활절…
특별한 의미없이 다가오는 사순절…
그저 좋아하는 것 중에 한가지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안일한 생각과 안도감이 있을 뿐…

하지만 2016년도 사순절은 나와 내 두 딸(효인, 효경)에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들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일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막내 효경이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학교를 가야했기에 학교 갈 준비를 다하고 교회를 가야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누르지 못했고,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우리는 매일 아침 교회로 향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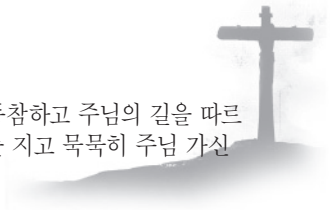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하는 경험을 하게했고, 나라와 교회, 다른 관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폭을 넓혀주셨다. 또한 섬김과 봉사, 배려와 사랑,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셨다.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하는 일은 없었지만 사순절 새벽기도회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며 조금씩 삶이 변화되는것을 서로가 느끼며 감격해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평범한 삶 속에서 아무런 사고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셋은 벌써부터 다가올 사순절 새벽기도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하게 하실 지 하는 비전을 가지고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으면 하는 소원을 마음에 가져본다.

이성숙 집사



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목요일/ 3월 2일

위대하신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창조론을 부인하고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된 포유류의 한 종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탄생 되었는지 묻는 물음에 '우연' 이라 대답합니다.
지구가 태양계에서 지금 공전하고 있는 정확한 이 위치에 있을 확률이 대서양 연안의 모든 모래알을 다 모아 놓은 곳에서 한 알을 찾는 것과 같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태양과 가까웠다면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멀었다면 너무 추워서 이 곳엔 생명이 존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이가 동전 100개를 한꺼번에 던졌는데 모든 동전이 Head가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동전 한 두개를 던진 것도 아니고 100개나 한꺼번에 던졌는데 모두 약속이나 한 듯 Head가 나왔다니? 확률로 계산하면 1/2^100 =7.888× ⟦10⟧ ^(−31)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당연하다 할 만큼 엄청나게 적은 확률입니다. 근데 대서양 연안의 모든 모래알 중에 한 알을 찾는 것은 이런 수치와는 비교도 안되게 작고 작은 값입니다.

수학에서는 1을 무한대로 나누면 영이라고 합니다.(1/∞=0) 이걸 부인하면 달나라에 로켓을 쏴아 올린것을 포함한, 인간이 발전시켜온 거의 대부분의 과학과 기술이 설명되어 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과학 기술의 기본이 되는 미적분(Calculus) 개념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서양 연안의 모래알은 무한이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세어가는 동안 계속 새로운 모래 알들이 생겨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똑똑한 사람들이 우연히 생길 수 있다고 우깁니다. 100개가 아니라 동전 20개를 한꺼번에 던졌는데 모두Head가 나왔다고 해도 정말 그랬냐고 의심의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둥 할 그들이.

그러므로 이 지구와 이 곳에 있는 생명들은 '우연' 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이해할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분이 계시고 그 분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믿는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별 지구를 지으시고 경의로운 생명들로 이 곳을 채우셨고 봄에는 이쁜 꽃으로 여름엔 넘치는 푸르름으로, 그리고 가을엔 지으신 섭리로 잎을 떨어 뜨리며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에게도 색동 저고리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길고 긴 겨울도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덮으시듯 새 하얀 눈으로 세상을 덮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소방차 한대 씩 붙어서 물을 주어 가꾼다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왜 눈은 새하얀가요? 검은 잿 빛이면 안 되나요? 단풍은 왜 그리도 아름다운가요? 나무에 사는 동물들은 색을 구별 못해서 잎이 다 검은 색으로 물든다 한들 다람쥐나 새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믿습니다. 우리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아름다움을 더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당신이 느끼시는 아름다움을 우리도 느낄수 있음을 아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나무도, 우리가 긴 겨울 바라봐야 할 세상을 덮을 눈도 아름답고 깨끗한 색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다시 회복 시키시기 위해 당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내가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선물을 거져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정광근 집사

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늘 참고 기다려 주시며 섬세히 일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양육하며, 세상에 베푸는 제 자신과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금요일/3월 3일

신독 (愼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41)

작년(2016년) 만 50의 나이가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며 스스로 호(號)를 정했습니다.
신독(愼獨), "남이 보고 있지 않는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사실 호를 정하려고 할 때 제 생각은, 사람들 앞에서 반듯한 척 하는 것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겠다는 생각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를 생각 했었습니다.

허나, 저의 심령을 꽤뚫어 보시는 주님앞에 서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그냥 '신독' 으로 호를 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 회개합니다. 누군가 만일 제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거나 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돌을 들어 저에게 던지며 독사의 자식이라 욕할 겁니다. 유혹에 흔들려 넘어질 때마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혼자말을 하며 은근슬쩍 지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번번히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며 올해 2017년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목표를 세워야 겠다는 생각에, 그냥 성경 1독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이요한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 읽기표를 받아들고 성경 1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재미가 쏠쏠할 때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과 저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하고 '자조적 웃음' 을 지을 때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고 갈등하며 번번히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를 보며,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하셨을까?... 번번히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가눌길이 없었습니다.

허나, 이러한 반성과 회개도 잠시, 다시 똑같은 죄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보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로 머리가 숙여 집니다.

안성완 장로

기도: 이 염치없는 죄인 주님의 사랑만 믿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앞에 온전히 서게되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아멘

토요일/ 3월 4일

사랑하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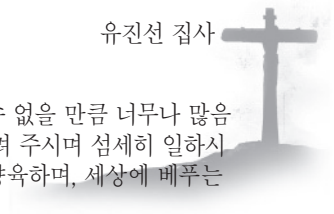
4년 전 이맘때 처음으로 사순절 묵상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게 아이를 갖게 된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또, 감사함을 넘어서 아이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렇게 저는 아이를 맞이했고, 누구나 그렇듯 육아에 대해 아무런 지식과 사전 정보 없이 닥친 현실은 솔직히 참 벅찼습니다. 물론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도 컸고, 육아책도 찾아보며 엄마로서 해야 할 일들에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임했지만, 제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희생해야만 가능한 엄마라는 직업은 참 challenging 한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몸이 피곤할 때 아이를 대하는 제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은 흡사 두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마냥 기쁨으로 감당해 내는 사람들을 보며 부럽기도했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라고 자책 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힘을 달라 양육의 지혜를 달라 구하기는 했지만, 실상 저의 마음에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며, 내가 사랑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곤 합니다. 그럼에도 엄마 최고, 엄마 좋아, 사랑해라고 매일 고백해 주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이런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을 고백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과연 나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를 원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결단을 실천으로 보여 드리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보단 멀어져 간 것 같은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 교육을 위해 먼저 제 삶의 모습들이 변화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주일을 섬기고,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등등,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 이 배제된다면 그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저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아이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인 '사랑' 을 전하는 모습의 엄마가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서툰 제게는 아마도 쉽지 않은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버리고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진선 집사



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늘 참고 기다려 주시며 섬세히 일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양육하며, 세상에 베푸는 제 자신과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사순절 첫째주일/ 3월 5일

찢겨진 마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누가복음 2:34-35)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주님은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그것도 부족하여 주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개로 장정만 5천명 먹이시고 12광주리가 가득 남았다고 소리치고 다니길 원하실까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주 만큼은 더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찢겨진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찢겨진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찢겨진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찢겨져 봤으니 말입니다. 그 때 우리 주님도 큰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요?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탈북녀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북의 이야기들을 엮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탈북을 하다가 어머니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는 하루 종일 무릎꿇고 머리 숙이고 앉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는 쉽지 않아서 제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교도관에게 걸렸습니다. 체벌을 받아야 하는데 체벌은 손바닥을 쇠막대기로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딸이 매 맞는 것을 보고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걸복걸하면서 어머니가 대신 맞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대신 체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탈북녀가 한없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 때문에 어머니가 아픔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평생 딸은 또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갑 출연자들이 모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의 찢김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엄마의 찢겨진 마음 딸의 찢겨진 마음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마음의 찢김의 경험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실은 찢겨진 마음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생각해 봅니다. 출연자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을 때 당사자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교우 여러분,
찢겨진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주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웃에게 드릴 때 이웃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찢겨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제일 갖기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 주님은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찢겨진 마음의 소유자에게 놀라운 노래를 허락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찢겨진 마음의 소유자들의 노래만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영길 담임 목사
<2016년 2월 14일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 금식, 그리고 구제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누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멘

월요일/ 3월 6일

야고보를 따라간 순례의 길:
Camino de Santiago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 55:12)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St. James 는 요한의 형제, 세베데의 아들이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받는 세 제자 중에 하나로서 변화산, 겟세마네동산의 마지막 기도 등, 항상 세 제자의 이름이 같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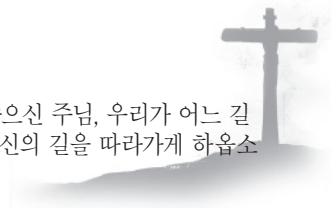
야고보의 라틴어 이름은 Santiago이며, 첫 순교를 당하기 전(사도행전 12:1-2) 그는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되었고, 전설이 얽혀 있는 스페인 서북쪽의 대성당 Santiago de Compostela는 100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의 순례의 길 Camino de Santiago (Way of Saint James)의 최종 목적지가되어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3대 순례지가 되었다.

야고보가 걸어간 순례의 길을 따라가려면, 한 달 이상 850 Km 이상을 걸어야 하는데, 마지막 일주일분 순례의 길을 다녀왔다. 새벽에 스페인 중부를 가로질러 산과 들판, 시내를 건너 끝없이 이어지는 Santiago의 아름다운 순례길은 저절로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게 만든다. 동트기 전에 출발, 배낭 메고 노란 화살표만 보고 따라가는데, 하루6 – 9시간 걸었고, 결국은 3일째부터 오른 발바닥 한쪽이 부어오르기 시작, Pole에 의지하며 걸을 수 밖에 없었다.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다가, 몇 번이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겨우 다른 순례자들을 다시 만나면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했다. 마치 나의 삶에서도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다 다시 돌아온 때처럼. 여러 모습의 순례자들이 한 길을 같이 가며 Buen Camino! 인사와 눈빛을 나누곤 각자 자기의 길을 간다.

매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 돌아보며 회개, 축복을 헤아리고, 주위의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등, 그리곤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많은 '관계' 를 계속 묵상하며 하루의 여정을 끝내곤 했다. 짧은 순례의 길이어서, 아직도 못 다한 기도와 묵상을 지금도 집 부근 산길에서 계속하고 있고, 발톱 몇 개가 까맣게 변하긴 했지만 Camino de Santiago길에서의 축복의 시간을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던지 매일 가는 길이 바로 주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김정선 장로



기도: 우리 모두의 순례의 길에 항상 동행해주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가 어느 길에, 어느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당신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화요일/ 3월 7일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27)

눈길에서 반 바퀴 돌아 나를 향해 달려오는 차들을 마주할 때
꽝꽝 얼은 눈길에 남편이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을 때
건강이 염려되어 이런 저런 검사를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TV에서 투병 중인 누군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볼 때
총격 사건으로 시끄러워진 뉴스를 접할 때
지금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가늘고 불안한 것인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하다가, 이내 잊어버립니다.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최근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게 죽음이 없을 것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이 생을 다하실 날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고아이거나 잠재적 고아이고, 또 길고 짧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는 미래 계획에 죽음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정말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는 넘치게 생각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좋은 죽음을 맞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감사하며 살아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죽음을 보는 시각은 그 이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죽음을 염두에 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의 한 부분인 죽음을 의식하며 살 때 나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절감하게 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주어진 날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신중하고 의미있게 살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삶의 순간 순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해인 교우(부부 청년)

기도 : 주님, 저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일생을 충실히 살게 하옵소서. 아멘

수요일/ 3월 8일

낮은자를 세우시는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미국으로 유학을 온 이래로 전공 특성상 매 해 많은 오디션들을 봐 왔다. 누군가에게 내 실력을 평가받는다는 건 그다지 기분이 좋은 일 만은 아니지만, 오페라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고 매 오디션 때 마다 품었던 기대감은 점점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오디션을 위해 내가 투자한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실패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억지로 하고 있었다. 그래야만 나약한 나로서는 그날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었으니까.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오디션을 앞두고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들이 겹쳐 생겼다. 오디션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오디션 전 날에 공연이 잡힌 것이다. 결국 공연 스케줄을 소화하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새벽 버스에 올라 오디션 장소로 향했다. 한시가 급한 마음인데 설상가상으로 승객 중 한 명이 쓰러지는 바람에 고속도로에서 한 시간 더 머물게 되어 결국 새벽 다섯 시쯤 숙소에 도착을했고 네 시간도 채 못자고 오디션 장소로 향했다.

그날 내 목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였고 난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오디션에 최선은 다했지만 평소 실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했고 결과도 듣기 전에 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 몇 년을 기다렸던 기회인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했다. 그 순간 거짓말같이 내 이름이 호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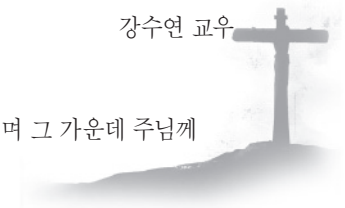
나는 착각하고 있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삶을 진두지휘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인 줄 어리석게도 모른 채. 하지만 그날, 너무나 나약한 인간인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가장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체험하고는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너무 늦게,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내가 기대한 일은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없다는 것을...

앞으로 내 삶에 있을 주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 28:7)

강수연 교우



기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께 나의 앞날을 맡기며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목요일/ 3월 9일

나의 배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23-26)

썬플라워 성경공부를 준비하면서...

큰 파도가 두려워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과 그런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꾸짖으시며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읽으며, 파도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그 파도가 그들의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의 파도는 온다. 얼마나 잘 노를 저어 나갈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 그 파도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역경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해주셨던 엄마의 말이 생각났다.

파도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한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며 그들의 신앙 발전의 기회를 주신것 같았다.

그렇다면 내가 타고있는 배는 어떨까하는 생각이들었다.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의 믿음의 배는 잔잔한 호수에서 떠있던 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작은 파도에도 쉽게 두려워하고 잔잔한 물 위에서는 한없이 거만해져 막 나아가려했던 나의 배.

이제 조금씩 사회에 나와 어른이 된다는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배는 더 큰 파도가 있는 바다로 나아가려고 한다. 사실 아직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 또 어떤 큰 파도들이 내 삶에 올지 모르고 내가 과연 그 파도들을 이겨 낼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공부를 준비하며 제자들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런한 제자들의 두려움과 거센 파도도 쉽게 잠재워 버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는 오늘 하루도 더 튼튼한 믿음의 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를 젓기를 주님과 약속했다.

결국 내 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거센 파도가 있는 바다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거친 파도에서도 용기를 갖고, 잔잔한 물 위에서도 내 거만함으로 스스로 빨리 나아가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이끌어 주신 곳으로만 향하는 그러한 용기를 갖고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기도한다.

방수영 교우(청년 1부)

기도: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금요일/ 3월 10일

저의 빛이 되신 주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4-5)

주님의 빛이 제 마음에 있어
항상 든든 합니다

제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제 영혼이 고단치 않게 합니다

주님의 빛이 제 마음에 있어
병중에도 담대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광채가 날때엔
주님이 너무도 가깝게 계심을 느낍니다

너무 너무 어두워 넘어진 것도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빛이 제 마음에 있어
저는 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김종희 집사
(2008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주님이 꼭 바라시는 빛으로 머물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토요일/ 3월 11일

어떤 사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23)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친동생은 아니었지만, 여동생이 없던 저에게는 그 친구가 여동생 같았고, 언니가 없던 그 친구에게는 제가 친언니 같았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였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그 친구와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밝고 생글거리던 그 친구의 얼굴에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했고, 그 암세포는 척추로, 폐로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정확한 진단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이속도가 빨라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확실할 뿐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나이 24살 때였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진 후,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시간이 되면 찾아갔습니다. 공부하던 곳과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밥도 잘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러 교회에 가는 일이었고, 아울러 금식도 저절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그 손길이 그 친구에게 닿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극도의 통증 때문에 진통제로 인해 잠들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세 달 후, 잠깐 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꼬옥 안아주셨어"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친구는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던 저의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갔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사촌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동생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다닐 바에는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의 입에서 "언니 저 교회 가 볼래요"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 되물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도대체 왜 교회에 가 보려고 하는 건데?" 라는 다소 위험한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 동생이 겸연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친동생도 아닌 그냥 교회에서 아는 동생 때문에 언니가 밥도 안 먹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촌 동생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때 왜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고, 금식을 했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사랑해서' 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사랑했기에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고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크고 위대하여서 제 옆에 있던 사촌동생이 그 사랑을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 저에게도 스스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도대체 어떤 사랑 때문에 저에게 찾아와 주셨는지를…

유보라 교우(청년 2부)

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주일/ 3월 12일

아버지의 마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5-13)

Richard Rohr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작고하신 후 제가 제일 즐겨 보는 책이 바로 이 분의 책입니다. 그는 오늘의 자기가 된 이유를 아버지에게 돌리곤 합니다. 아버지가 늘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것이 오늘의 자기가 되게 하였다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아버지를 두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멋진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자녀들은 날아간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또한 이웃을 믿는 백부장을 보고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 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믿음에 대한 부분이 클라이맥스일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 하나씩 놀랍고 신기한 마음을 점점 갖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홈런을 맞은 것 아닐까요?

다시 정리하면,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 오시는 것을 감당할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으로 인해 놀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을 보고 뒤로 넘어 가실뻔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결국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인을 즉시 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과 겸손 그리고 믿음으로 엮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수녀가 페루에서 감옥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해를 섬기고 있는데 어머니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수감자들이 수녀에게 어머니 날 카드를 구해 달라고 요청해서 구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계속 원해서 카드를 여러 상자 구해 주었습니다. 곧 아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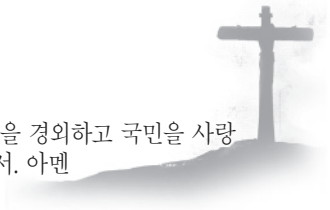
지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대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버지 날 카드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내드릴 아버지가 없기에 아버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없기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Richard Rohr는 때로는 친아버지가 아닌 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백부장으로 인해 놀라셨는 지 감이 잡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웃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한번도 찾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방인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큰 기쁨 가운데 놀라신 것입니다.

이영길 목사
<2016년 2월 21일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기도: 세상이 권력의 다툼으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섬기는 깨어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월요일/ 3월 13일

순종의 아름다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2)

어느 해인가 한국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운해를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 떠다니는 구름을 올려다보다가 높은 곳에서 구름을 밑으로 내려다보니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바다같기도 하고 눈이 덮혀있는 광활한 대지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름의 바다를 지나고 나니 망망 대해의 태평양이 눈 밑으로 펼쳐졌습니다. 워낙 높은 고도라 넘실거리는 파도와 대양의 깊음보다는 하나의 매끈한 푸른색 캔버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캔버스 위에 검은 색의 한 점이 나타나면서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얀 색의 두줄이 계속 그어지고 있는 것이 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점은 대양을 가로질러 어느 항구로 향하고 있는 배일 것이고 그 뒤의 하얀선들은 배의 후미에 있는 스크루가 돌면서 만들어진 하얀색의 파도들이 너울거리며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문득 그 광경을 보며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며 만든 인생의 흔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은 저 배와 같이 한점에 지나지 않겠지만 펼쳐놓은 인생의 흔적들은 분명 높은 곳에서도 선명히 볼 수 있는 스크루가 만들어낸 하얀색의 파도일 것입니다.

창 너머로 바라보던 눈을 잠시 감으며 세월이 흘러가며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의 흔적,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마감한 후에 더 선명하게 나타날 흔적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하나 라는 생각에 저의 과거속에 남겨져 버린 흔적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미래에 남기게 될 흔적을 상상해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사함과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거절치 않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순종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진욱 집사
(2007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화요일/ 3월 14일

부부함께 일년 성경완독

"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몇 년전 박신영 장로님이 '맥체인 식 성경읽기표' (M' Cheyne Bible Reading Plan) 를 성인성경 공부반원들에게 나눠준 바있다. 그때 알게 된 '멕체인 식 성경 읽기표' 를 매년 계속 따라하니 매일 성경4장을 읽게되고,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게되어 이 성경읽기표를 교회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멕체인 성경읽기표 새해 첫 날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위대한 시작 즉 창세기(세상의시작), 에스라(회복의시작), 마태복음(복음의시작), 사도행전 (교회의시작)의 순으로 시작한다.

저희 부부는 매일 저녁 식사후 성경 4장을 한글이나 영어로 읽고 묵상하며 번갈아 기도한 후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혹 저녁에 BNI 와 같은 일정이 있으면 이틀 분을 하루에 읽곤한다. 매년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매년 새롭게 성경을 또 읽게된다.

결혼한 지 48년이 되어가는 우리 부부이지만 아직도 의견이 달라서 서로 티격태격 말 싸움을 하고 난 후면 성경공부 할 마음의 준비가 잘 안되어 얼마간 서먹한 분위기가 되지만, 언제나 처럼 남자가 먼저 아내에게 화해를 청한 후 일단 성경을 함께 읽고 나면 기도순서에서 우리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있음을 감사하며 하루의 성경읽기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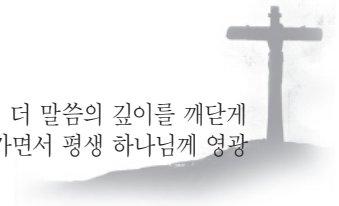
우리 부부에게는 몇 가지 불문율이 있다. 1. 사과는 남편이 늘 먼저한다. 2. 다툴때 집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간다. 3. 다툼은 그날로 풀고 잔다. 4.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 등등

조지뮬러의 '기도하면' 중에서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부부입니다." 를 읽으며 바로 이것이 지금 저희 부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졌다.

2016년 12월 말로 40년 간 운영해 오던 수의과병원을 정리하고난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읽기와 명상, 그리고 부부 합심기도와 하나님의 뜻 따라 일하기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새해가 될 줄 믿는다.

.

김계숙 권사/김문소 장로



기도: 주여,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을 때마다 조금씩 더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요일/ 3월 15일

그 못자국난 손으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요한복음 19:1-2)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으나 실상은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알지 못했으며 외로움과 수치가 어떤 감정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위할 줄 아는 이기적인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에게 커다란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그 소녀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고 게다가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 속에서 그 소녀는 울부짖고 원망하였습니다. 서서히 친구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비로서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몸이 되어 길을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쳐다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소녀는 어떤 분을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녀가 당한 모든 고통과 슬픔을 체휼하신다고 했습니다. 소녀가 눈을 들어 그 분을 보았을 때, 그러나 그 분은 온몸이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되어있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겨운 한발 한발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당한 고난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그 분이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느낀 수치감보다 훨씬 더 커다란 수치를,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외로움을 그 분은 겪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그 고통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분은 그녀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위해 그런 고난을 겪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당한 모든 고통으로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는 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죄와 교만함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진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여 30살이 넘은 그녀는 다시 그 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 못자국난 손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숭고한 사랑을 묵상합니다. 참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던 그 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김기현 교우
(2007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주님, 저의 고난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커다란 고난 가운데서도 원수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겸손함을 이 시간 저에게도 채워주소서. 아멘.

목요일/ 3월 16일

역전 (逆轉, Turn around)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기 4:12)**

이 여인의 조상은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여 태어난 '모압' 입니다. (창19:37)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저주하였습니다. (민23:7)
이스라엘 백성과 음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민24:17)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신23:3, 느13:1)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렘48:29)

그러나, 이 여인은
절망의 순간에 누구를 따를지를 분명히 결심합니다. (룻1:4-5, 16-17)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체험합니다. (룻2:3)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체험합니다. (룻2:13)
바닥을 치는 순간에 충만을 경험합니다. (룻2:14)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룻2:20)
진정한 보호를 체험합니다. (룻3:9)
모든 것을 책임지는 기업 무를 자를 만나게 됩니다 (룻4:6)
이방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역전을 경험합니다. (룻4:10)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역전을 경험합니다. (룻4:17-22)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고,
현재도 그 자격이 유효하며,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신호식 교우

기도: 참된 인생 역전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3월 17일

용서할 수 있는 자만 용서한다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46)

예전 어느 글에서 읽었던 용서에 관한 짧은 문장이 오늘 아침 나로 하여금 용서라는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는 계기를 마련한다. –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자만 용서한다면 무슨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겠는가? 그런 사랑과 용서는 악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며 용서다."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는 언제나 적당한, 때론 정당한 사유를 만들고 관대해진다. 반면. 같은 일을 나 자신이 당했을 경우, 그때 그 순간을, 그 상처를, 그 모욕을 끌어안고 다니며 틈만 나면 거기에 골몰하고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그 생각뿐이길 반복하며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키우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과는 달리 나에게 분노와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직장동료에게 분노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사/선생에게 상처받고, 나를 믿지않는 친구에게 토라지며, 나에게 버릇없이 대하는 후배에게 격분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 선배에게 화나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가족/친지들에게 배신감을 토로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도 증거하듯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자만 용서한다면 크리스찬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셨던(눅 6:27–28),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셨던 (마18:21–22) 주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닮아가려하는 것이기에 더 특별한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 여러곳에서 때론 명령조로, 때론 회유조로, 그리고 때론 협박조로 다양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 다시 되짚으며 묵상하고 싶다. (엡4:32, 골3:13, 마18:35, 눅 6: 27–36)

오늘 하루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느 한 사람을 용서해 보련다.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으로 "괜찮다. 살다보면 그럴 수 도 있지" 라고 말하며 그에게 너그러워져 보련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무한대로 관대한 것처럼.. 또 주님이 그리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의 지난 모든 죄를 조건없이 그러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이혜승 집사
(2007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저도 그에게 관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하소서. 아멘.

토요일/ 3월 18일

나의 갈길을 인도하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오래전 어느 곳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원찮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GPS도 없고 전화기로도 찾을 수 없을 때였지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인지도 몰라 누구에게도 물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몇시간을 헤메는 동안에도 전화로 남편에게는 묻기 싫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듣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점점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은 심히 불안해져 나도 모르게
"주여, 저에게 길을 인도하소서"
하며 어둠이 내리는 길을 얼마 동안 더 헤매던 중 정말 다행히 큰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그 길에 항상 주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의 GPS 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더욱 더 확고한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

아울러 나의 목적지(destination)는 주께서 예비하신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이웃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소서.

김정림 권사

기도: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세째주일/ 3월 19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4:40-42)

오늘 사순절 세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수난을 영어로는 'Passion' 이라고 합니다. 종종 'passionate suffering' 으로 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원래 라틴 원어의 'passio' 의 뜻은 '수동' 'passiveness' 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non-activity' 를 뜻하며 무엇이 자기에게 향해 오는 것을 도리어 깊게 받아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난은 예수님에게 찾아 오는 것들을 깊게 받아드리는 모습입니다. 곧 주님은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조차 그대로 받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passive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passive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내 몰았고 사람은 하나님께 내몰았습니다. 탁구공처럼 passive하게 여기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셨습니다. 한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까지는 passive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대로 공생애 3년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치면서도 당신이 원하셔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당신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항상 앞장 섰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삶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 오셔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놀라운 결정을 내리십니다. 당신의 뜻을 다 내려 놓으십니다. 기도의 제목도 내려 놓으십니다. 전적으로 passive한 생애를 살 것을 결단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active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의 마더 테레사의 말을 들으면 주님의 이 결단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체리의 향기가 되고도 남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겸손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굴욕이 필요하다." 마더 테레사의 글을 읽으면 왜 주님께서 그토록 세번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 감이 잡힙니다. 어마 어마한 굴욕을 거쳐야지만 아주 작은 겸손의 덕을 쌓게 되는 것을 마더 테레사는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으시기 위해서는 어마 어마한 굴욕 아니 우주적 굴욕을 거쳐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상상할수 없는 굴욕을 거쳐야 하셨습니다. 가장 큰 굴욕은 하나님의 아들이 passive하게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주적 굴욕을 결심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하신 첫번째 이유는, 당신의 우주적 굴욕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굴욕에 동참하라고…. 주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체리의 향기를 발하는 삶으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이영길 담임 목사
<2016년 2월 28일 사순절 셋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월요일/ 3월 20일

생 (生)과 향(香)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7)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삶의 근원 또는 뿌리가 숨이어서다. 이 숨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 이다. 해서 '숨 쉬고 산다는 뜻의 생(生)이 주(主)님의 숨결 (丿) 이란 표시다. 산다면 숨을 쉬어야 하고 숨을 쉰다면 '주 하나님' 께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숨결로 사는 인생(人生)을 성경은 향(香)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향은 사람이 먹지 않고는 유지 할 수 없으니 곡식 화(禾) 밑에 '가로 왈(曰): 하나님 말씀' 이 받치고 있다. 또는 '하늘 나라의 영원한 영광(榮光)의 빛' 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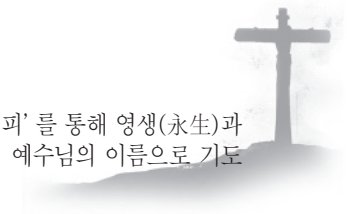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香)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8)" "향연(香煙)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8:4)"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숨결인 생(生)이 피조된 사람의 숨결 향(香)으로 보답되는것.

이 香자 1)하나님의 숨결(丿) 2)인자(人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木(十人)에 달린 영원한 사랑의 '十' (십자가)를 통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식구(食口)' 인 것을 증거한다. 이 十 사랑의 증명을 모든 인간이 생향(生香)을 풍기며 예수 그리스도께 증거해야 한다. 간단한 말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7-40)" 이 간단한 원리가 성경 전체 또는 十 사랑의 원리원칙을 그린 것.
내 몸에서 十향(香)이 떠나지 말아야...

신영각 집사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피' 를 통해 영생(永生)과 영향(永香)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숨 쉬고 뿌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3월 21일

맡기는삶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 하시리니 너는 두려워말라 놀라지말라. " (신명기 31:8)

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똑똑하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다. 아빠는 언제나 나를 지혜롭고 똑똑하다했는데, 외할아버지께서는 나를 '조조' 에 비교하면서 "너는 가끔 네 꾀에 네가 스스로 넘어지는 헛똑똑이" 라고 하셨다. 외할아버지의 혜안이 맞는 것 같다.

나의 길지않은 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도 스스로 정말 많이 공부했다. 믿음은 의혹으로부터 시작이라며 내 힘으로 알고자 많은 서적을 읽었고, 여러 성경공부 강좌를 섭렵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깊고 높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참으로 참담하고 좌절되었다. 하나님께 진정 칭찬받는 신앙을 가지려는 소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그 진리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지식의 축적이 쓸모없다는 것을 아주 늦게 알게 되었다.

어느날 다큐멘터리 '잉카의 후예' 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일년에 한번씩 태양제를 치루면서 그 해의 풍년을 가늠하는 'condor 날리기' 가 있었다. 2m가 넘는 큰 날개를 가진 콘돌이 스스로 잘 날지못한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태양에 가장 가까이 까지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새라고 한다. 마치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상승기류를 타고 나는 활공이라 생각하면 된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콘돌은 높은 절벽과 절벽사이에서 생성되는 상승기류를 타기위해서는 절벽 끝, 위험 한 곳까지 걸어가 서서 바람을 기다리다 힘껏 뛰어내려야 한다. 상승기류에 몸을 맡김으로, 단지 날개를 펴고 있기만 해도 태양을 향해 높게 날아오를 수 있다. 이것이구나, 내가 독수리처럼 앙망하는 하나님 바라기 신앙을 원한다면 맡겨야 한다 내 자신을. 마치 상승기류에 자신을 던진 콘돌처럼...

그 많은 세월 노력하고 나아가려고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 헛꾀였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이제라도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길 준비를 해야겠다. 먼저 절벽 끝에 서야 한다. 그 끝에 서서 성령의 바람에 맡길 것이다.

전신애 권사

기도: 세상의 어려운 삶 속에서 이 모든것이 끝 이라 여겨지는 절벽 끝 자락같은 삶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상승 기류에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수요일/ 3월 22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시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위하여 염려하지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33-34)

I. 어제와 오늘

자고 일어나니 어느덧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근심과 걱정이 다시 찾아오나 싶더니, 아니었습니다. 분명 새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에게 잠을주신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잠을 자고나니 어제는 지나가 버리고, 새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시간을 차마 제 정신으로 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격정의 날을 보내고 새날이 오니 어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의 소망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나를 얽어매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모두 내일이면 사라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잠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궁극의 선물로 나는, 오늘 이 순간도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II. …그리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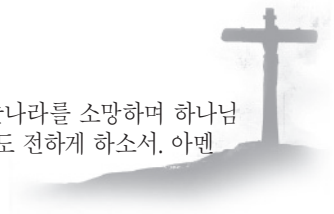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갑니다... 엄마 뱃속... 아기... 국민학생... 대학생...결 혼... 유학... 아이들...
어느덧 마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 날들의 개수가 지나온 시간들만큼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맞이한 예수님 생일날들을 세어 보고, 또 앞으로 맞이 할 횟수도 세어 봅니다. 많이 남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점점, 예수님께서 나하고 만날 날이 가까와지고 있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만지고 보고 느끼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겠지요?

빨리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임을 알고 있기에,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 주길 원하시겠지요? 점점 더 많이 대화하길 원하시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이지훈 집사



기도: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말고,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게하소서. 이 소망의 빛을 이웃들에게도 전하게 하소서. 아멘

목요일/ 3월 23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그의 자녀들을 지키신다"
(시편 121:4)

"(생략)하나님 불쌍한 저를 이해하시고 생각하셔서 꼭 한국으로 역이민가게 해주세요
전 조금만 더 여기 있으면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가 없을 때면 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발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공부도 밤세워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그럼 전 하나님만 믿겠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을 믿어요. 제발 도우실 줄 믿으며 그럼 이만 쓰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동윤 올림. 8/4/1999"

"나 이동윤은 앞으로 맞이 할 새학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길 원한다. 내가 아직 어려서 물질적으로 부모님께 해 드릴 수 없지만 오직 한가지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는것이다. (중략) 눈물 나는 날도 많겠지만 언제나 곧게 자라날 것을 약속한다.
내가 지금 쓴 이 각서는 나와의 약속인 것이다 . 이 각서에 있는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8/29/1999 이동윤"

작년 2016년 6월 11일 딸 동윤이가 주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청년과 결혼하였는데, 결혼식 날 그 동안 더 잘 해주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가슴에 밀려오면서 감격과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30년 양육하며 몇 번의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버지로써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위의 글은 딸이 하나님께 쓴 편지와 각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희 가족은 1998년 1월 한국에서 IMF 외환 위기 사태가 발생되어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외국자본으로 넘어가게 되어 갑자기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안되어서 세 식구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그동안의 직장 경력이 이곳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집사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5학년 겨울 방학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언어 소통이 안되어 학교생활이 힘들었으며, 특히 친구가 없고 게다가 무남독녀 혼자라 외로웠고, 저와 집사람은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데 바빠 딸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딸은 더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것 같습니다.

어느날 자신이 도저히 감당 할 수가 없었는지 하나님께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여 일 지난 어느날 적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딸에게 이곳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각서대로 중,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여 원하는 대학 과정을 마치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때가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딸의 기도편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메이도록 아팠으며 아버지로써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였으나 막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않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를 접하고 더욱 더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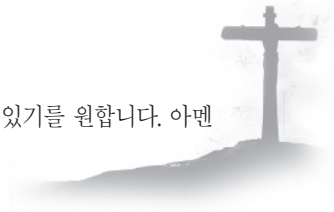
그리고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딸이 좌절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각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후 딸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당시 갑자기 계획없이 이민을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으며 이민 초기 광야와 같은 미국 생활에서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희 가정에도 내려주시며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로써 가족의 앞 날을 염려하고 지키고자 했던 간절한 나의 마음 이상으로 우리의 죄가 전가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아들을 내어주며 아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이원걸 집사

기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금요일/ 3월 24일

교회가 키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하심이라" (에베소서 4:11-12)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제 아이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고, 이 글을 제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읽을 때는 제 아이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을 사순절 기간이 되겠지요.

전 아이를 임신해서부터 보스톤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아이가 18살이니 18년 전이네요. 그때는 교회에서 만나는 빛나고 아름다운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 청년들을 키워내신 부모님들의 기도와 정성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한번은 그런 청년의 부모님께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잘 기르셨냐고 여쭈었더니, "교회가 키웠죠!" 라고 답하셨습니다. 교회가 키운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다소 엉뚱한 대답이 지난 18년 동안, 화두처럼 제 마음에 남아 계속 되물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대학교로 떠나 보내야하는 요즈음에 들어서 새삼 '교회가 키운다' 라는 말에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단 5분도 한자리에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던 아이를 조카처럼 보살펴 주셨던 첫 유년주일학교 선생님, 아이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손꼽는 주일학교 졸업반 5학년 선생님, 부부공동체 모임에서 사촌처럼 뛰놀던 친구들, 밤늦게 교회문을 닫고 나오면서도 두 주에 한 번밖에 못만난다고 늘 아쉬워하던 구역 성경공부모임, 학교에서 외톨이처럼 느껴지던 아이에게 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중등부 친구들, 섬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여름성경학교, 세상 풍속안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던 고등부 언니와 오빠 동생들, 기도의 힘과 성령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들… 그리고 제 연약함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셨던 교회 어른들과 형제 자매들…. 그렇게 제 아이는 교회가 키웠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는 그 이별이 이미 예견되었을지라도 미안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그런게 인간의 감정일 겁니다. 가을에 아이를 대학교에 떠나보낼 생각을 하며, 그런 뒤섞인 감정을 예견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고, 슬프고, 불안한 감정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주신 교회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아이들을 당신 보시기에 기쁘게 키워 내시려고,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이고 한 해고, 제 아이를 맡아 기도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던 해바라기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도사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한국인의 얼과 말을 가르쳐 주신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그리고 교회 복도에서 만나는 이 개구장이에게 늘 따뜻한 격려와 인사를 주셨던 수많은 교회 어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승연 집사

기도: 성령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토요일/ 3월 25일

아픔과 고통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3-4)

지난 7월 말에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크게 앓으며, 힘들게 몇 달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몸의 큰 고장없이 지내왔기 때문인지, 이번의 이 일을 겪으면서,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참기 어려운 것이란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참 괴로울 때는 그저 모든 것이 짜증나고, 불평, 불만인 채, 안절부절 못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무언가 너무 갑갑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갔습니다. 성가대석 위에 있는 유리창이 아침 햇살에 유난히도 환하게 밝아 보였고, Stained Glass에 그려져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겟세마네동산에서, 슬픔과 번민속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후 십자가가 연상되고, 주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생각되며,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를 가만히 내려다 보시며, "나는 네 아픔을 다 알고있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모든 짜증과 불평, 불만이 천천히 사라져감을 느끼며, 기도드렸습니다.

김성빈 장로
(2008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주신 이 귀한 아픔과 고통의 선물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멘

사순절 넷째주일/ 3월 26일

한 여인의 헌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요한복음 12:1-9)

195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장 지오노라는 프랑스 작가의 '나무를 심는 사람' 이란 글이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10년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프랑스의 남부 프로방스 지역을 한 젊은이가 방문합니다. 그곳은 당시 바람만 심하게 불고 마을도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습 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외로운 양치기인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납니다. 50대 중반의 이 양치기는 일찍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이 황량한 골짜기에 와서 한 마리의 개와 더불어 스무마리 남짓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날마다 그의 가방에 알이 굵고 실한 도토리를 가져다가 매일 100개씩 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만났을 때 그 일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는데 자신이 이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고 그 중에서 만 그루의 참나무가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 다.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 후에 젊은이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세월이 10년 정도 지납니다. 다시 찾은 그 마을에서 그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느새 그 양치기가 심은 참나무와 자작나무들이 골짜기를 뒤덮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또 지납니다. 이 젊은이도 어느덧 중년이 되고, 이 양치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그때에 그는 또 한 번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이 내린 산림이라며 다시 동네를 이루고 삽니다. 그 곳에는 시원한 강물이 흐르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따뜻함이 흘러넘칩니다.

그곳에서 그는 95세가 된 그 양치기 노인을 만납니다. 홀로 그는 작은 나무에서 큰 숲을 이루었는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홀로 묵묵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그동안 보스톤 한인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한 그 결과물들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 도후서 2장 14-15절)

단지(Jar) 안에 담겨져 있는 향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깨어져서 모두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헌신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박도술 목사
<2016년 3월 6일 사순절 넷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기도: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월요일/ 3월 27일

하루 이틀 삼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7-10)

어릴 적 저는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꿈을 꾸며 지냈습니다. 우렁찬 박수소리와 함께 무대를 걸어 나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100여명의 오케스트라가 저와 호흡을 맞추며 음악을 만드는 기분은 그 어느 것보다 매력적이었고 중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모습 뒤에는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연습이지요. 공연에만 홀려있는 저는 연습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한 음 한 마디를 수백 번도 더 반복하며 고운 음악을 완성하는게 진정한 음악인의 정신이지만, 자만에 가득찬 저는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번 후루룩 연주하면 연습 다 했다며 만족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저를 바로잡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저의 스승님입니다. 시애틀에서 활동하시는 마가렛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의 가정사항이 넉넉하지 않은 것을 알고, 레슨비도 장학금으로, 여름 캠프비도 본인집에서 Garage Sale을 열어 집에서 사용하지않는 온갖 물건들을 내다 팔아 비행기 표와 용돈까지 마련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마가렛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단 한가지, 바로 올바른 연습이었습니다. 연습하지 않은 학생은 레슨 시작도 전에 종종 집으로 돌려보내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대회에 수상을 못하고 남만 탓하는 저한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20여 년 넘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유명한 음악인 야샤 하이페츠가 말하길, 바이올린 연습을 하루라도 쉬면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알게 되고, 이틀을 쉬면 동료들이 알게 되고, 삼일을 쉬면 청중들이 알게 된다. 반대로 하루 연습하면 두 배, 이틀 연습하면 네 배, 삼일 연습하면 여덟 배로 너의 음악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올바른 연습방식을 가르쳐주시고 말썽꾸러기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마가렛 선생님의 은혜를 갚고자 저는 그 후로 진정한 연습을 하였고, 제 삶, 학교생활,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도 매 순간을 소중히 보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 자신한테 이 질문을 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나? 매 순간 주님을 섬기고 있나? 신앙생활은 음악이랑 다릅니다. 이틀 기도 안 해도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3일 성경 안 읽어도 목사님께서는 여전히 따듯한 인사를 나눠 주십니다. 집사님들께 똑부러지게 인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아무도 제 휘청거리는 신앙 상태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바쁜 삶에 치우칠 때 저는 10 살의 저와 다를 바 없이 하루 이틀 후다닥 식사 기도, 이메일에 날라오는 성경 구절한 두 개, 하나님과의 시간을 대충대충 보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매 순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7-10)"

저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생각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이틀 지나도 하나님과 대화를 안 나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지요. 반대로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면 제 신앙이 두 배, 네 배, 여덟 배로 자라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조영지 교우

기도: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열심히 신앙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세요. 아멘

화요일/ 3월 28일

주님 여기 계시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예하는 자가 된 것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고린도후서 1:7)

언젠가 차문을 세게 닫다가 손가락이 끼어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아픈적이 있었다. 호들갑스럽게 아프다고 수선을 피우며 울다가 문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때 얼마나 아팠을까?" 라고 울음 섞인 코맹맹이 소릴했더니 우리 애들이랑 남편이 아프다고 울때는 언제고 울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놀려대서 그만 울다가 웃어버리고만 적이 있었다.

그 정도의 아픔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비교를 했었다니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그런데 최근의 큰사고에서는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의사 선생님이 양팔 전체에 생긴 3도 화상을 보며 나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이식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을 때, 대리석처럼 굳어져있던 양팔이 아무런 감각이 없었기에 수술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실감이 안났다.

큰 수술후에는 엄청난 고통의 아픔들이 있었다. 수술실에 내려갈 때마다 난 무섭고 두려운 공포심 속에서 주님을 찾았다.

'주님 여기계시죠'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셨기에 견딜 수가 있었다.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는 이유없는 슬픔과 서러움에 갇혀서 난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
주님은 그 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주님의 손으로 내 손가락을 덮으시어 다치지않게 하셨음을 제일 먼저 감사했는데, 아픔이 클수록 감사한 마음은 자꾸만 대상없는 화살이 되어 애꿎은 남편에게 날아갔다.

아마도 주님은 사랑이란 이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신 것 같다. 교회 식구들의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에 난 감동 받았고, 난 그 사랑을 통해 나누어 주는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김춘미 집사
(2007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나같은 죄인 찬송을 부르며 은혜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수요일/ 3월 29일

수의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11)

인생의 나이 70이 보통이고 강건하고 길어야 80이라고 하는데 내 나이 까치발을 세워서 90세 닿는데 너무 많이 살았다. 의학이 발전하고 식생활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장수하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한국에 가서 옛 친구들을 찾으면 많은 분들이 가셨고 살아있는 사람끼리 만난다고 해도 거의가 몸이 불편하고 혼자 나와 다닐 수 없다고 한다. 비행기 탈 때도 생년월일을 보고는 특별대우로 휠체어에 태우고는 그들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 신을 벗고 X-레이 앞에 손들고 항복하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눈만 껌벅껌벅하며 앉아서 통과하는 꼴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딸과 사위가 한국에 볼일도 있고 엄마 치아도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으니 이번에 나를 모시고 가겠노라고 해서 얼씨구나 하고는 따라 나섰다. 아들이 용돈이라고 100불짜리로 두툼히 주니 신바람이 났는데 사위가 또 마음 놓고 쓰라고 두툼한 봉투를 주기에 그 마음이 바뀔까봐 사양도 없이 얼른 받아 마치 날개 돋힌 늙은 여우 할머니가 되어서는 한국 가서 할 계획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할 일도 많지만 옳거니 수의라는 것을 장만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옷감으로는 옛날 결혼식 때 시댁에서 혼수함 속 밑에 세모시 두 필이 있었다. 후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고장 한산에서 제일가는 특산중의 특산 세모시란다. 1971년에 이민 떠나면서 책이니, 의복, 세간살이를 다 없애고 오면서 이 모시는 이민 짐 속 밑에 한지로 잘 싸서 가지고 왔다. 80세가 넘어서부터 옳지 그 귀한 모시로 수의를 만들어야지 했는데 이번 여행에 가지고 가서 만들어 와야지!! 서울에 가서 삯바느질 하는 집을 찾았더니 옷감을 보자고 한다. 자기 집에 세마포 좋은 것이 많다며 내보이는데 그래도 내 모시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머리를 흔든다. 나 자신도 놀라서 속으로 계산했더니 2000불이 넘는 것이 아닌가? 아니올시다로 두자 하고는 삯은 얼마냐고 했더니 옷감 값과 같단다. 그럴 돈도 없거니와 나 같은 짠순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꼬 하고는 보스턴에 도로 가져왔다.

옛날 사람들이 윤달에 수의를 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2017년도 새 달력을 봤더니 금년 5월에 윤달이 들었다.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내 손으로 내 수의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계획하면서 그 몇 천 불짜리 귀한 것으로 수의를 입었다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죽을 순간 나의 영혼의 본향을 상상해 보았다.

나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곡조는 음치요 음성은 자식들이 흉보는 이상한 우그러진 깡통소리이지만 마음과 표정을 아름답게 똑바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내 영혼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지. 글쎄, 내 생각대로 되겠는지? 아니야,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으니 간절한 기도가 나의 할 일이로다.'
주후 2017년 1월25일 새벽에….

김현지 권사

기도: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3월 30일

생명의 값어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때때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가누어 침대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괜시리 짜증이 나거나 있던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그냥 푹 쉬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넘쳐 나는 해야 할 일들과 촘촘히 짜여진 스케줄의 홍수 속에서 감사한 이유들이 눈꼽만큼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 용케 스스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 부랴부랴 찾아서 읽는, 저의 옷장에 붙여 놓은 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과분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가는 것.
그것이 이 여행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였다면 매일매일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저의 삶입니다.
그런 저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분.
그 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저의 삶이 생명과 에너지로 가득 찰 수 밖에 없는 여행자처럼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의 값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길 소원합니다.

김학주 교우

기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 당신의 피값으로 제가 많은 것을 누립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크고 작은 용기의 순간들을 허락하사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여러가지 모습으로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요일/ 3월 31일

친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7)

언제 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말, '친구'.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라면 쉽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친구라 칭하려면 보통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가져야할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신뢰'라고 답할 것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믿을 때,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을테니까요.

한 살 두 살… 나이가 더 들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있던 '친구'마저도 소원한 관계가 되어갑니다. 모든 것을 바쁜 일상, 각박한 세태 탓으로만 돌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의 문제점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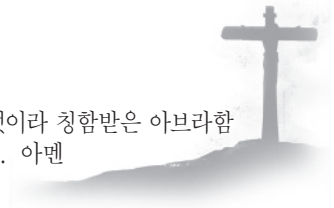
이런 때에 마음에 딱 와닿는 찬양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You know all about me, the good and the bad
You know when I rise and fall
You see my beginning
You stand at the end
And yet You remain faithful to say I'm your friend

내 삶의 매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삶의 한 가운데 계시며,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많은 죄와 허물을 지닌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 그리고 그런 못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친구'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합격점을 받기는 힘들듯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간구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는 나로 변화되도록...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최현구 집사
(2008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하나님. 행함으로 의롭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에게도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토요일/ 4월 1일

말씀의 믿음과 행함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22)

2008년 유학길에 오르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 한지가 벌써 9 년째가 되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세례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분석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말씀을 저의 일상 생활 속에서 행하려는 노력이 없었던것 같고, 또 과연 잘 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항상 부담스럽게 느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항상 피해만 왔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겨울에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를 5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만의 재회에 저희는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 자리가 끝날 때 즈음에 친구가 저한테 문득 내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는 그 동안 많이 변한것 같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유해진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드세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는 저한테는 생소하면서도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그동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졌겠지' 하고 그 자리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그 친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저라는 사람이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누워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깨달으려고만 했지 굳이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천한 노력들 조차도, 저의 생활에 무의식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은혜로운가를 새삼느끼면서, 세례를 받고 더 열심히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이런 말씀의 힘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곤고해지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이제 세례를 받은 지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요즘 매일 아침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읽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행복이 충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지 않았었나 하는 후회와, 왜 이제와서야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는지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해보면서 저의 이런 작은 노력에 하나님이 저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송영 교우

기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십시요.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 4월 2일

창, 그리고 피와 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31-37)

다코다 지역 어느 원주민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의 한 젊은이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의 친척들이 모여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자가 그들의 사정 이야기를 들은 후 잠시 담배를 피면서 조용히 명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친척들에게 집으로 가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가져 오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져 온 선물은 살인자에게 전해 줄 것이다.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우리는 그를 우리의 친척으로 삼는 것이다. 그 사람은 너희들의 형제가 되고 나에게는 조카가 되는거지. 앞으로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는 죽은 형제가 다시 돌아 온 축복이 되는거고…."
그리고는 살인자를 불러 왔습니다. 살인자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너의 친척들과 함께 앉아 담배를 피게. 그들이 너를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삼기로 했지. 이것은 그들의 바램이야. 그러므로 너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들 안에 들어가 함께 살아. 이 선물들이 바로 너를 그 죽은 사람처럼 사랑한다는 증거물이지, 영원히…." 이 이야기를 들은 살인자는 심하게 오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면서 최고의 친척이 되어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코다 원주민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죽은 당신의 몸에 창을 찌르는 군인에게 당신의 남은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주셨습니다. 군인을 사랑으로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춤을 출 것을….

우리가 춤을 출 때 두 가지 일어 납니다. 우리 주위의 어둠이 우리를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합니다. 한편 우리의 춤이 어둠을 정죄합니다. 어둠이 쫓겨 갑니다. 이러할 때 우리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증인은 어둠 가운데서 춤을 추는 자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절이 마쳐질 때 우리 모두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로 인해 춤을 추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가십시다.

이영길 목사
<2016년 3월 13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기도: 탈북자들과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은혜를 나누어주시고 속히 남북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월요일/ 4월 3일

Thank You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18)

Our Father in Heaven,
Our King, Our Peace,
Our Hope, Our Lover,
Our Daddy.

Thank You for all You' ve done, all the things You haven' t done yet,
And all the things You are doing now.
Thank You for all You chose not to do – all the things You prevented for our sake,
And all the things You stopped from crushing us.

Thank You for all You' ve given, all the things You will give,
And all the things You are giving to us in the present.
Thank You for all You haven' t given to us, for You have plans for us;
As You are the One Who gives and takes away.

Lord, in this season of repentance and reflection,
In this season of remembrance and thankfulness,
In this season of life, truth, and prayer,
We remember that day where You have chosen to take Your path.

We remember that Day, where You cried out, "Abba, Father."
That Day, where You cried tears of blood.
That Day, where, despite Your suffering, You remembered us in love,
And said, upon Your wooden tree, "It is done."

You did not say, "It will be done."
You said, "It is done."
You made it, so that when we entered the world,
We were already forgiven.

Lord, as we reflect these upcoming days,
As we pray, and as we seek,
Won' t You let us remember You
And all You' ve done?

Lord,
Won' t You let these whooping shouts of praise,
These tender whispers of love,
All be for You?

안수민(Youth Group)

Prayer: Lord, It is all for You. It is all about You. And that is why we are so glad. Thank You, Father. In Jesus Christ' s Holy and Wonderful Name, Amen.

화요일/ 4월 4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네 이웃을 네 몸과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9)

우리 큰아들과 맏며느리는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여 첫손자가 태어나기 1여 년 전부터 한 마리를 구하여 길렀다. 현대는 개의 평균 수명이 12년 이라고 한다. 지난 1월에 그 개가 수명을 다하였다. 이름은 Cody라 불렀다.

Cody의 생일은 우리 부부가 결혼한 날이고, 간 날은 나의 생일 날이었다. Cody가 간 날, 아들 부부는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무척 부었었다. 손자와 손녀는 Cody라는 말도 못 꺼내게 했다.

이틀 후엔가 초등학교 1학년인 손녀가 우표를 달라고 하기에 찾아 주었더니 이미 가 버린 Cody한테 보내는 편지 봉투에 붙여 달라고 한다. 봉투는 이미 봉함되어 있어서 편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 겉봉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Allie Kim

Cody Hong
4 Love St.
Heaven, SKY

그래서 내가 zip code는 00000로 쓰라고 일러 주었다. Cody가 간 도시는 Heaven (하늘나라, 천국)이고 그 나라는 SKY (하늘)다. 나는 도시와 나라 이름 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지만 거리 이름이 Love이고 번지가 4라는 것에 더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

'Cody, 너는 이 땅에서도 우리와 가족처럼 사랑을 주고 받았는데 저 하늘 위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너와 이웃이 있는 사랑의 거리에서도 계속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라' 는 어린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도 남았다.

이 세상에서 살 때 나의 이웃은 나의 주위에 있는 '너' 이고 나는 또 '너' 의 이웃이 된다. 한 평생을 살아도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살기에 바쁜데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나의 이웃과 어울려서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삶을 누려야겠다.

김형범 장로

기도: 나를 사랑하는 습관에서라도 이웃을 사랑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요일/ 4월 5일

감사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막 열 달 쯤 지났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지내는 시간만큼의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들이 저희에게는 매일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요즘,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우리 모습이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절대 알지 못하던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예배 시간의 경건함도 좋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성경의 오묘한 깊이도 참 좋았습니다. 하나 둘씩 알아가는 주변 교우님들과의 교제가 주는 기쁨도 참 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무척 흐뭇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뻤던 것은, 작은 일 하나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 아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내는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을 초대해 점심을 함께 한다며 아침부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날은 평소와 달리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여서 평소엔 로컬로만 다니던 길인데 이상하게 그 날은 하이웨이를 타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exit에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환한 아침 햇살에 너무나 눈이 부셨습니다. 순간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햇빛이 이렇게도 눈부실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며 3초 혹은 5초 쯤 흘렀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차는 가드 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운전을 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차 사고를 내고 말았지만 다행히도 저와 아이들은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고는 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차를 살펴 보았습니다. 차의 앞 범퍼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헤드라이트가 덜렁 거린 채 차에 매달려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튼튼한 차가 이렇게도 쉽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흉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희 같았으면, 왜 이런 쓸데없는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속상해하면서 짜증을 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는 부주의했던 저를 질책했을 것이고, 저도 그냥 재수없었던 거라며 투덜댔을 것입니다. 전에는 분명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그 날 아침,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했고, 다른 차와 부딪혀 더 큰 사고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차가 저만큼만 박살 난 것도 감사했고, 저희가 다시 만나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했습니다. 사고가 난 주일 아침, 교회에 같이 가자고 아침 일찍 저희를 픽업 와 주신 분도 있었고, 차 수리하는 일을 본인의 일처럼 직접 챙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주변에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저희들은, 아직 성경도 다 읽지 못했고,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마음은 주변에 온통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다가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혁/이지나 교우

기도: 삶의 모든 순간 순간 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목요일/ 4월 6일

고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8:17)

예수님의 고난은 고상하고 신적(神的)이며 왠지 고통도 없어 보여서 우리에게는 그 현실감이 작게 느껴집니다. 배고파 주리시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슬퍼서 우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시는 이 모든 것이, 어찌보면 예수님께는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조차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가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모습, 잡혀가시며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구타를 당하시는 모습, 십자가에 못박혀 괴로와하시는 모습 등 예수님의 고난이 현장감 있게, 피부에 느껴지게, 몸서리 쳐지도록 잔인하게 다가오는 이 영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들이 실제의 사건이며 또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 크나큰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위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주위에 만연한 사회의 악을 없애려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등, 나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허구나 환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이같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나 자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손영권 교우
(2008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저의 십자가를 오늘 알게 하시고 제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금요일/ 4월 7일

절대 현혹되지 마라.

"부활 후에 돌아온 예수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 38-39)

얼마 전에 "뭣이 중한디" 란 대사로 잘 알려진 '곡성' 이란 영화를 두 번째 보게 되었다.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주제, 3시간에 가까운 긴 러닝 타임, 그리고 음침한 분위기의 장면들로 가득한 이 영화를 참지 못해 끝내지 못했다. 그러나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했다는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다시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었다. 나름대로 찾은 성경적인 요소와 감상을 부활을 맞는 교우들과 같이 나누려고한다.

이 영화는 평범했던 시골 마을 곡성 이라는 곳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기괴한 사건들을 주인공이 겪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주요 등장인물들에는 특별하지 않고 조금 어리숙한 보통 사람인 주인공 종구가 있다. 그는 우리들처럼 직업도 있고 나쁜 짓도 안하고 가진 환경에 적응해 살며 딸을 사랑하고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한 경찰, 아빠, 남편이자 아들이다. 그리고 공포와 불안, 그리고 기괴한 일들을 만드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지인, 외지인과 대치되는 인물인 동네 바보이자 모자란 여자 무명, 외지인과 종구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정체성을 지니고 종구와 영화를 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무당, 일광이 이 영화의 줄거리를 구성한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한다. 평범한 마을, 곡성에 외지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 외지인의 동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죽고 병에 걸리거나 귀신에 들리는 기괴한 일들이 생겨나 종구와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게 된다. 그러다 종구의 딸에게도 귀신에 걸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자 종구는 더 이상 사건의 관찰자가 아니라 외지인이 벌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안, 공포 그리고 어둡고 불결한 "악과 지옥" 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정신나간 여자 무명은 사건 현장을 따라다니며 이 악의 사건의 해법과 진실을 아는 듯이 "내 손을 만지라" 거나 "닭이 세 번 울 때까지 기다리면 가족을 구할 수 있다" 는 등의 말들을 하지만 종구는 정상이 아닌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미친년 이라며 무명에게 면박을 주게 된다. 종구와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고 또 당황하며 귀신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 무당, 일광을 마을에 들이고 그의 말에 현혹되어 살풀이를 하지만 효험 없이 귀신 들린 딸이 종구의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함으로써 그 "어두움" 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영화는 끝난다.

영화 곡성은 무명과 외지인을 통해 절대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대립, 공존시키며 외지인이 나타날 때 마을 내에 불안과 공포는 강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어설픈 무명의 대사들은 절대 "선" 으로 외지인의 "악" 에 대항하지만 강한 카리스마 없음에 번번이 무시됨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종구는 결과적으로 외지인의 "악" 을 돕는 일광의 그럴듯한 말과 행동에 현혹되어 무명의 너무도 단순한 해결책들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보여지는 줄거리 외에 이 영화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사건들을 관객으로 하여금 다 알고 지켜 보게 하는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주인공처럼 체험하게 만든다는 데에 있다. 마치 영화를 보면서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이 평범한 종구처럼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에 휘둘려야 될지, 말아야 할지, 보이는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계속 혼동하고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이 영화 주인공, 종구와 우리의 모습을 동일시하여 삶에서 "선"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악의 포장된 모습에 현혹되어 불안과 두려움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위의 제목은 이 영화의 예고편 엔딩 문구이다. 이 문구는 영화 감독의 간증과 이 '곡성' 이란 영화를 보고 부활을 맞는 불안한 나를 향한 예수의 당부이며 나의 참회이다.

김희수 집사

기도: 주님, 믿음의 깊이에 관계없이 항상 현혹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토요일/ 4월 8일

사랑하는 방식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 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 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누가복음 6:34-36)

청년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조금 지나 이제야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30대가 되고보니,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내 인생에 들어오거나 스쳐 지나갔다.

어릴적 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예수님의 사랑을 일찍이 깨달아서 그 은혜를 알았기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내 주변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결심했고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고, 그런 내 마음을 악용하던 사람들도 수 없이 많았다. 참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렵다. 사랑하기 싫다. 미워하는게 오히려 훨씬 쉽다. 그게 나를 더 보호하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일까?

20대의 마지막, 나를 위한 큰 도전을 했지만 그 도전 가운데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 나를 힘들게 했고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악한 관계가 되었다. 사람과의 관계란게 나에게 그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도 못했다.

나를 이미 사랑해주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건 상대적으로 쉽다. 내가 주는 사랑만큼 돌려받는 것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정말 원수같은 이들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어렵다.

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랑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나를 계속해서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사랑하셨다. 언젠가 들은 설교중 "사랑하면서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실망만 하게 된다". 기대가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그렇지 못했다.

사랑할 땐 그냥 사랑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다른 목적 없이 오직 사랑이 목적인 사랑. 정말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도전해야 할 일이다.

이수경 교우(청년 2부)

기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상처준 이들을 용서하고 예수님께 빚진 마음으로 내 이웃들, 그리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도록, 아버지에게로 부터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종려 주일/ 4월 9일

나귀 새끼를 타신 왕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누가복음 19:33-35)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주님도 하나님을 이기기 위하여 레슬링선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갓난 아기가 되셨습니다. 갓난 아기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위하여 주님은 갓난 아기처럼 되셨습니다.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갓난 아기인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주님은 Power of weakness를 믿었습니다. 믿은대로 연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임을 확신하셨습니다. 최고의 배우가 되신 것입니다. 믿은대로 연기를 하는….

한편 주님은 무리들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언젠가 이 무리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power of weakness의 증인이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은 동상이몽일지라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무리들은 당신과 동상이몽 중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무리의 편을 드십니다. 이유는 무리는 약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강자입니다. 이 무리가 후에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무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이 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끝까지 약한 자 편에 서셨습니다. 무리는 단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에게 이용 당하는 약한자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실험용 제트기 한 대가 캘리포니아의 에드워드 공군 기지를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제트기의 조종사가 착륙을 위해 앞 기어를 낮추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부조종사가 제트기의 문제 확인에 나섰고, 계전기 판에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계전기 판을 받쳐 앞 기어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할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종이 클립 하나가 보였고 그는 클립을 구부려 계전기 판을 받칠 수 있게 했습니다. 앞 기어는 다시 움직였고 제트기는 끔찍한 사고를 면할수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다른 그 정밀한 장비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그만 종이 클립 하나였습니다.

약함의 파워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클립 보다도 더 작은 자로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작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약함의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약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수 밖에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아픔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1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주님은 약함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확신을 안고 오늘 종려 주일을 맞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 오십니다. 나귀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왕이신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맞이 하십시다. 주님은 약한 자들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영길 목사
<2016년 3월 20일 종려/고난 주일 설교문 중에서>

월요일/ 4월 10일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삼 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복음 15:24-25)

우리들은
당신의 십자가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
날마다 당신의 간절하신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때마다 이유를 만들어 외면했습니다.

당신의 피묻은 살갗이 찢겨지던 고통도
못박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던 당신의 아픔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회한을 거두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당신을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의 나무들이 소리죽여 울었던 사실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부르는 일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옥합 깨뜨려 당신의 피묻은 살갗 위에 바르겠나이다.
두 손 깨끗이 씻어 정성스레 바르겠나이다.
당신이여 평안하시나이까…

당신의 십자가 끝에
우리들의 울음이 멈춥니다.

고경아 집사
(2007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나의 가진 모든것을 사용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화요일/ 4월 11일

치유를 위한 기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5-6)

부활주일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어둠과, 절망과, 실패와 슬픔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는 희망과 밝음과 성공과 기쁨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앞날에도 어둠과 절망과 실패와 슬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있기에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이란 영원히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는 내재적인 인식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음으로 희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Wayne W. Dye).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부활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다면, 절망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이 아름다운 노래와 같이 흐를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 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일이 어둠과 죽음같이 잘못되어 간다해도 미소짓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심으로 가치있고 힘있는 사람입니다(살전 5:16-18, Ella Wheeler Wilcox).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넌 극복 해낼 수 있어!" 그칠줄 모르시고 속삭이십니다. 생명과 부활이 있는 한 희망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외롭고 슬프며, 춥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분의 영혼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 강길원 장로
(2008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총으로 절망과 아픔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4월 12일

나오미의 축복과 보아스의 축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룻기를 읽으면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홀로 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어미 집으로 돌아가서 모압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 1:9)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마음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권장하고 있었다.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 1:15) 이것은 잘못된 축복이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분명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었다. 나오미는 그렇게 잘못된 축복을 하며 잘못된 길로 며느리들을 가이드하고 있었다. 룻은 끝까지 우기며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하여 나오미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 그 결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축복과 지도가 올바른 축복과 지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지만 잘못된 축복을 할 때가 많지 않은가. 말로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현실적인 것들과 눈앞에 있는 세상 일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Ivy League에 보낼수 있을까, SAT가 코앞에 있는데 교회갈 시간에 과외수업을 받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은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활동에 참여하기 보다는 점수에 유리한 다른 책들 읽고 수학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common sense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가이드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시험 잘봐서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다.

그러나 먼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지도해주지 않고는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지 모른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르바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될 수가 있다.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단지 시어머니를 섬기려는 마음에서였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큰 축복을 받았다. 한편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축복한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 2:12) 나오미와 보아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만 나오미의 축복은 세상적인 것이었고 보아스의 축복은 신앙적인 것이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좋은 남자랑 재혼해서 아들 딸 낳고 편안히 살 것을 축복했으나, 보아스의 축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했고, 그런 룻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상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왕인 다윗왕의 증조할머니로 만드신 거였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게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한 것 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더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랑으로 올바르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겠다.

홍경애 교우

기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목요일/ 4월 13일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17)

주님!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셨음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신 것을 저의 생각으로는 알지만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댓가로 원망이 돌아 올 때 마음으로는 무척 화가 나고 화를 내면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멈추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 마음이 깨어지고 상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고, 마음속으로는 미움으로 상한 가슴이 계속 피를 흘리며, 도움을 받고서도 화를 던지는 이웃이 원망스러워집니다.

하오나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저의 이 피나게 터진 가슴을 멸시하시지 않으실 뿐아니라 죄 없으신 주님 손의 못 자국에서, 옆구리의 창 자국에서 흐르는 피를 보이시며 "너희 터진 가슴이 이 피를 닮지 않았니?" 위로하실 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용서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용서는 네가 그 이웃을 용서할 때 발효될 것이야!"

주님,
제 가슴에 피를 흘리는 것이 제 피가 아니라, 저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피, 주님의 아픔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가슴이 찢기는 아픔이 주님의 고난을 증거한다면 기쁨으로 주님의 산 제물이 된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입술과 마음뿐 아니라 온몸과 영혼으로 이웃 사랑하다가 고난 받는 것, 주님 사랑의 증거이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내 깨어진 마음을 사랑하신다고…

홍경자 장로
(2008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발췌)

기도: 주님, 저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를 감싸며 아픔을 평강으로 바꾸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금요일/ 4월 14일

스쳐가면 사랑하노라

"그가 내 앞을 스쳐 가시건만 보이지 않고" (욥기 9:11)

박완서 작가의 책 중 한 대목이다. 작가가 젊은 시절 읽었던 책 구절인데, 성경을 소설 형식으로 썼단다. 그대로 옮긴다.

' 유령처럼 그 사나이(예수)가 다시 집무실 입구에 세워졌다. 사나이의 야윈 손에는 갈대 잎이 쥐어져 있었다. 빌라도는 침묵 속에서 사나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빌라도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죽지 않으면 안될 것 같네.'
사나이는 계속 빌라도를 바라보기만 했다.
'민중이란 그런거지. 그런데 왜 돌아 왔나? 왜 나를 말려 들게 하는가?'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스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스쳐 갈 셈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대를 잊을 걸세"
'당신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가면 그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왜지?'
'내가 그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그때 창밖에서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는 군중의 고함 소리가 합창처럼 들려왔다.'

박완서 작가의 고백은 계속된다.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소리없이 나를 스쳐 간 건 시간이었다. 시간이 나를 치유해줬다.'

그를 스쳐간 건 시간이었을텐데, 나를 스쳐간 건 시간을 타고 내게 다가온 주님의 사랑이었을터. 아멘

김화옥 집사

기도: 주여, 빌라도까지 사랑한 당신을 제가 사랑합니다. 아멘

성토요일/ 4월 15일

종과 왕 (2016년 부활절 묵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영광을 떠나
종이 되신 왕
왕이신 종

십자가를 찾는 종
종같이 산 왕

십자가를 지는 종
종으로 죽은 왕

우리를 부르는 왕
왕의 부름에 다가온 사람들

종으로 앞서 가시는 왕
우리는 종을 따라 가는가, 왕을 따라 가는가

종을 필요로 하는 주님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이 되는 연습이 필요한 우리
그러나 왕이 되고픈 우리

종과 왕
나는 …

박신영 장로

기도: 섬김을 배우는 것이 소중한 목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주일/ 4월 16일

부활의 첫 증인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누가복음 24:6-7)

희망의 사제라고 별명이 붙은 차동엽 신부님이 어느 기자와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늘 당신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어느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절망이 덮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도 희망을 고집할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나에게 딱 3일간만 절망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든지, 울든지, 술을 퍼마시든지, 신세타령을 하든지 하면서 실컷 절망하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희망을 추슬러서 다시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차동엽 신부님의 영성이 바로 산파의 영성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산파의 영성을 이 여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멀리서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3일을 절망합니다. 그들은 3일간 지난 3년간의 섬김이 물거품으로 돌아 간 것을 생각하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3년간 보낸 시간과 정성 특별히 안개처럼 사라진 물질적 섬김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안에 주님의 죽은 몸과 함께 자기들의 정성스런 섬김도 시체가 되어 묻혀 있었던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를 3일간 아파합니다.

이제 3일째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용감하게 일어납니다. 더 이상 뒤엣일들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도 안녕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헛수고로 돌아간 섬김의 시간과 물질과도 안녕을 할 셈으로 그들은 무덤을 찾아 갑니다. 어느덧 그들에게는 산파의 영성이 생긴 것입니다. 3년간의 섬김이 결코 헛수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년간의 섬김 그리고 3일간의 절망을 통해 산파의 영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데 이 여인들은 3일만에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무덤으로 찾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산파의 영성을 소유한 이 여인들을 사도들에 앞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빨리 달리는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아름답게 춤추는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산파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산파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곧 산파의 영성은 섬김의 실패를 맛본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섬김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일간의 절망의 시간을 거친 후 생겨납니다. 절망을 박차고 다시 일어날 때 정금과 같은 산파의 영성을 덧입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은 자주 자주 실패로 끝납니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산파의 영성을 소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섬김이 자주 실패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 집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나의 증인으로 남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들의 섬김이 실패로 끝났을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의 실패한 섬김을 부활시킵니다. 결국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부활시킵니다. 우리들의 죽을 몸을 아울러 실패한 섬김까지 부활시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산파의 영성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영길 목사
<2016년 3월 27일 부활주일 설교문 중에서>

나의 묵상

* 사순절 묵상집에 기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내주신 옛 교우 장지은 교우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사순절 묵상집에 원고를 싣기 원하시는 분은 kcbweb2@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홍보위원회